네이버 검색은 한번만… AI '에어서치' 도입

질문의도·성별·연령 등 반영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단계
MIT 석학 등 추가영입 예고

네이버가 AI(인공지능) 검색 분야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별화된 검색 경험으로 이용자층을 공고히 하고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AI·검색 분야의 석학인 김윤형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조교수와 칼 스트라토스(이장선) 럿거스대학 조교수를 네이버 스칼라로 영입했다.

김 교수와 칼 교수는 AI 검색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딥러닝 기술 중 하나인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기술을 자연어처리(NLP)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을 논문으로 발표해 학계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칼 교수는 ACL, ENMLP, NAACL 등 자연어처리 분야 탑티어 학회에서 머신러닝 분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블룸버그 자연어처리(NLP) 연구팀에서 자연어이해(NLU) 서비스에 최첨단 딥러닝 기술 도입을 총괄한 실무 경험을 보유했다.

두 교수는 앞으로 미국 내 네이버 AI 센터 '네이버 서치 US' 소속 네이버 스칼라로서 활동하며 AI 검색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네이버 스칼라는 미국, 유럽 등 해외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와 연구원 등이 소속기관에 재직하면서 기업 서비스 개발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이미 페이스북 등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 제도로 네이버는 두 교수 영입을 계기로 처음 도입했다.

네이버는 그간 검색 정확도와 품질 제고는 물론 이용자별로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개인화 검색' 기능을 개발·도입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MS(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에서 근무한 AI 분야 전문가 김용범 책임리더를 네이버 서치 US 소속으로 영입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검색 브랜드 '에어서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김 책임리더와 두 교수의 합류로 에어서치 등 회사가 보유한 AI 검색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접목한 서비스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AI 검색 기술과 네이버가 보유한 쇼핑 등 타 서비스와의 결합 시너지도 가능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 돼 나온 것은 아니지만 AI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며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추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AI 검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AI 검색 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검색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고 해외 진출까지 꾀한다는 전략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018년 열린 '네이버 커넥트' 기자간담회에서 AI 검색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라인과 협력해 에어서치의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글로벌 인재 영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검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해외의 유수 연구진들을 영입하자는 인식이 있다"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이번 영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열어두고 글로벌 AI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LG CNS 직원들이 시큐엑스퍼의 구독형 OT보안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 CNS 제공

LG CNS, 구독형 OT 보안 서비스 공개

컨설팅·실시간 모니터링 제공
보수·구축비 등 월 단위 분납

DX(디지털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26일 온라인으로 'OT(운영기술) 시큐리티 테크데이 2022' 웨비나를 열고 구독형 OT 보안 서비스를 선보였다.

초기 고비용 문제로 OT보안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에 구독서비스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수십억원 이상의 솔루션 구축비용을 일괄 지불하고, 별도의 관리 계약을 맺어야 했다. LG CNS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축비와 유지보수비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OT는 스마트팩토리, 발전소, 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을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기술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OT시스템이 폐쇄망에서 벗어나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OT보안 중요성이 커졌다.

LG CNS는 컨설팅, 취약점 진단, 솔루션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산 일정을 관리하는 IT시스템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인 PLC(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도 보호한다. LG CNS는 전자, 석유, 화학, 에너지, 제약 등 대규모 생산설비에 대한 OT보안 노하우를 축적했다.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 OT보안 기업 클래로티와 손잡았고, 삼정KPMG, 인더포레스트 등 국내 기업과도 협업하고 있다. 파트너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외부 해킹 공격과 바이러스, 악성코드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사이버 공격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있다.

웨비나에서는 구독형 OT보안 서비스 외에도 올해 OT보안 트렌드, 해킹 시연과 취약점 해결 등을 주제로 6개 세션이 진행됐다. LG CNS는 지난해 보안사업 브랜드 '시큐엑스퍼(SecuXper)'를 내놓고 'MSSP(보안관리서비스 기업)'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배민 LG CNS DT사업부 보안사업 담당 상무는 "구독 모델로 고객은 쉽고 편리하게 OT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구독 서비스를 OT영역별로 세분화해 보다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개인정보 유출 쇼핑몰 과태료 268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개최한 제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처분대상인 플라이팝콘(해외구매대행), 피씨유(쇼핑몰), 알럽스킨(쇼핑몰) 등 3개 사업자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 모두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해커 공격 및 검색엔진 표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플라이팝콘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24시간 이내에 유출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통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알럽스킨은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추가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소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몰라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도구와 상담,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유선희기자

과기부 미래우주교육센터 설립 이공계 대학인재 양성에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전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이공계 대학에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주개발과 탐사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청년 인력양성을 목표로,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의 거점 교육센터를 5개 대학(원)에 설치하기 위해 추진한다.

미래우주교육센터는 교육·연구 전담조직을 갖춰 다학제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 우주기술 연구를 수행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공모 분야는 ▲우주수송기술 ▲우주탐사 및 우주자원 활용기술 ▲우주통신기술 등 3개 지정공모형과 2개 자유공모형으로 구성된다. 선발된 미래우주교육센터에는 한 곳당 연간 10억원씩 향후 5년 동안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3월 2~8일까지로, 3월 중 선정 평가를 거쳐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최종 선정한다.

이준기기자 bongchu@


충남대 '근육세포 분화억제 단백질 타깃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오픈랩' 소속 연구자가 실험을 하고 있다. 충남대 제공

근감소증 치료제·AI 농기계 개발… 신기술 주도

대학·기업 오픈랩, 지역 성장엔진 켜다

3 충남대학교

오픈랩 연구 인정…기업투자로
지능형 농기계 상용화도 앞둬
계약만 4건·연매출 5억원 기대

"대학 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과 손잡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보람됩니다. 최종적인 상품화를 이뤄낼 때까지 협업과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근육세포 분화억제 단백질 타깃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오픈랩'을 이끄는 박종선 의대 교수(약리학교실)는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작년부터 지역 기업 미토스테라퓨틱스와 근감소증 치료제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다.

근감소증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감소증은 노화의 한 과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질병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예방법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종선 교수팀은 근육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인 'PHF20'을 발견하고, 이 단백질이 또 다른 단백질인 'YY1'을 조절해 근육 손상과 근육 감소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2020년 6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PHF20가 과다하게 발현된 실험용 생쥐는 근육분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근감소증 치료제용 타깃을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타깃에 작동하는 화합물을 찾아내는 연구를 해 왔다.

대학 연구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한 만큼 빠른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오픈랩 연구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약물과 약리활성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PHF20와 YY1의 결합을 저해하는 후보물질을 찾아냈다. 또 체외실험을 통해 물질의 효능을 검증했다.

오픈랩에서 호흡을 맞춘 미토스테라퓨틱스는 1억5000만원의 기술료를 내고 2건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픈랩 소속 연구자 1명을 채용한 것을 비롯, 5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더 뽑고 상품화에 매진하고 있다. 기술의 잠재력이 인정받으면서 대덕벤처파트너스로부터 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팁스에 선정돼 5억원의 추가 투자도 확보했다. 충남대 기술지주도 투자 심사를 진행 중이다. 목표는 2024~2025년 근감소증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스마트 농업토털 솔루션 오픈랩을 이끄는 김용주 교수(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는 지능형 농기계 상용화를 목표로 지역 기업 대호, 로보드림, 센스아이와 호흡을 맞췄다. 김 교수는 지능형·친환경 농기계 전문가로, 4개의 모터를 각각 구동하는 방법으로 100㎾급 전기 트랙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오픈랩은 텔레매틱스 기술을 바탕으로 엔진 토크, 연료 소모량, 차량 속도, 차륜 회전속도 등 트랙터 작동 데이터를 실시간 계측해 서버로 전송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하를 예측해 신뢰성과 잔여수명을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시스템이 구현되면 사용자가 서버에 업로드된 GPS(위성측위시스템) 데이터와 작업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하고, 트랙터 내구 수명과 작업· 고장 이력도 알 수 있다.

오픈랩에 참여한 농기계 기업 대호는 총 2억7000만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4건을 맺었다.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올해 출시하고, 5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호흡을 맞춘 충남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연구자 3명은 산업현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충남대는 이와 함께 올해 ▲초고속 영구자석 전동기 ▲딥러닝 신약 개발 플랫폼 ▲친환경 비료 ▲IoT(사물인터넷) 환경 개선 ▲디지털 K-방역 시험인증 기술 개발 ▲동결난자 생산기술 등 총 8개 오픈랩을 운영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의 연구진이 보유한 개별 기술을 융·복합해 미래 지향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게 목표다.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주변의 풍부한 혁신 생태계를 활용해 불과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총 13건, 9억5000만원 규모의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또 6건의 논문과 20건의 특허가 탄생했다. 주변 혁신기관들과의 공조체제도 탄탄하다. 한국기계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29개 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티앤이코리아, 엔솔바이오, 펩트론, 파멥신, 세미, 나눔, 삼진정밀, 다원종합기술연구소, 알테오젠 등 기업들이 대학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을 시장에서 꽃피우겠다는 각오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OTT는 기존 미디어와 달리 자율규제 해야"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서 제언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기존 미디어 산업 지형을 바꾸면서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OTT는 기존 미디어 규제체계와 달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진행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산업 내 OTT의 정의, 규제 적합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OTT를 위한 규제를 만들기보다 OTT 사업자, ISP(인터넷사업자), 콘텐츠 제작자 등 관계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자율 규제'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OTT 가치사슬 구조를 '콘텐츠 제작-애플리케이션 탑재-인터넷을 통한 전송-소비'로 설명하며 각 단계마다 다각적인 쟁점이 존재한다고 봤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 후 앱에 탑재하기 위한 긴 영상물 심의, 제작사와 OTT 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OTT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제 거버넌스 신설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교수는 '톱다운'식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계인들의 공동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OTT는 추천 알고리즘 등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권자가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복잡한 OTT 가치사슬과 정보비대칭을 생각해보면 단일 규제기관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기자 view@

정부 '디지털 뉴딜' 사업에 국비 9조 투입

초연결 신사업 등 집중 확충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국비 9조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정부부처들은 26일 '제13차 디지털 뉴딜 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디지털 뉴딜 국비 투입 예산은 지난해 8조3000억원에서 약 7.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5년까지 국비 투자 규모를 기존 44조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분야별 투자규모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5조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 5000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8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1조8000억원이다.

데이터댐을 강화하기 위해 5797억원을 들여 음성·모빌리티 등 전략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 관보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도 추가 개방한다.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져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29개 기관, 75개 사이트의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지원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AI를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충북에 더해 AI 지역특화 지원을 6개 지역으로 늘린다. 기존 AI 7대 융합 프로젝트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마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15개 선도모델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자율주행 전기버스 3대가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을 오가며 운행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12월 부산에서 준공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다.